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급하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안전관리체계 구축 최선 업체 의무이행 노력 인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 안의 파스너 제조공장에서 노동인력 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 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애로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 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 위기 등을 지나면서 중소기업 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 리본부장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 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은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규정 마련 및 정부의 지원 요청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요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4일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김제시 딸기농장에서 열린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팜 농가에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토마토·딸기 생산효과 ‘톡톡’

농진청, 딸기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고도화 현장간담회

농촌진흥청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를 톡톡히 발휘 하고 있다.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를 이용해 완 숙토마토를 재배한 완주군의 농업인 은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보다 생산량 이 두 작기 평균 10.8% 증가(최대 13.7%)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안내 에 따라 서비스 전보다 이산화탄소(CO2) 사용량을 줄였는데도 생산량이 증가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답했다.

완주군의 또 다른 농업인(완숙토마 토 재배)은 작물 생육과 환경관리 상 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매 월 상담을 받고 있다며,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수 농가 정 보를 활용하면 자신의 관리 상황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농업 인은 안내에 따라 완숙토마토 정식기 를 3주차 앞당겼고 환경관리 기능을

활용한 결과 생산량이 23.5% 증가했 다고 만족했다.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를 활용해 딸 기를 재배한 초보 농업인(충남 논산) 은 딸기 재배 2년차에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25.0% 3년차에는 48.3% 증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딸기 재배 3년 차에는 겨울철 기온이 많이 떨어져 대 응하기가 어려웠으나, 서비스를 참고 해 환경을 잘 관리한 덕분에 주변 농 가보다 피해를 덜 입은 것 같다고 분 석했다.

농촌진흥청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 고, 농업인이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팜에서 수집한 자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딸기 재배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해 전략적 으로 딸기재배기술을 관리하고, 겨울 작형에서 연간 6,000kg/10아로 이상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

선하고 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최적 환경안 내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살 펴, 서비스가 빠르게 농업 현장에 확 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일 김제 시 딸기 디지털 팜 농가에서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딸기 디지털 팜 환경안 내 서비스 현장 적용 사례와 효 과를 소개하고,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딸기 청년 농업인의 어려 움을 듣고 개선점을 토의하는 간담회 도 가졌다. 이어 딸기 육묘기 동안의 병해충 발생 상황과 묘 생산 현황을 분석해 올해 딸기 가격이 상승하는 원 인도 발표했다.

박병홍 청장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농업인 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 만족할 만한 성 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철수 도의원 발의 건의안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재해 인정 성과로



정부가 지난해 전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 충 피해 총 피해율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 한 재해대책비(331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 벼 병해충 피해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북도와 정지권이 직접 발로 뛰며 이뤄낸 성과로 특히, 전북도의회 는 지난 10월 김철수 농산임업경제위원 장(정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 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벼 출수기와 가을잡기가 겹치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해 농민 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며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 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를 지원할 것” 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난 19일 농식품 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해충 피해 복구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유호상 기자



전개공,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설 명 절을 앞둔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전 주 남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 리 두기 준수를 위해 개인별 부서별 일 정으로 장보기 식당 이용 등 소비활 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 을 이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과일과 떡 등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

김천환 사장은 “지역 내 코로나19가 여전히지만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 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공사는 지방 공 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지방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창립 60년 이래 최고 흑자경영

정읍산림조합, 지난해 결산 당기순이익 8억3000여만원 27일 조경수작목회 개최



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2022년도에는 1월부터 여성조합원 및 정읍거주 여성시민을 위한 숲 문화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장학수, 사진)은 지난해 사업결산 결과 정읍 산림조합 창립 60년 이래 최대 당 기순이익(8억3,109만8,378원)이 발생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당기 순이익에는 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흑자 금 액 중 2억3,300만원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의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하였기에 실제로는 총10억4,48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읍산림조합은 지난 2021년 코 로나19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2020 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49.2%증가의 실적, 양적, 성장률 통해 19년 연속 흑자 경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출자비율 3.56%(규정상 최고의 배당률), 이용고 배당 1.49%, 사업준비금1.39%로 도합 6.44%의 배당을 하기로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오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읍산림조합은 2018년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 이후, 사업 부진으로 인해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장학수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2019년 당기순이익 141% 성장 을, 2020년에는 29.2% 성장률, 2021년에는 49.2% 성장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다.

장학수 조합장은 “2021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 및 조합원들

강좌 프로그램 ‘GREEN WOOD 아카데미’ 교육생을 선발하여 월별 로 다양한 산림체험 및 다양한 임 산물의 재배기술을 교육할 방침이 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산림조합에서는 올해부 터 ‘조경수 작목회’를 조직해 집 체된 조경업과 유통정보 부재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원 및 임업인들의 조경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정읍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경수들의 정확한 재배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이를 전산화(D·B구축)해 전국에 서 실시하는 조경공사 및 조경회 사에 조경수 판매정보를 제공해주 어 조합원들이 생산한 조경수 소 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산림조합의 ‘조경수작목회’ 창립총회는 오는 27일 연자이트홀 에서 오후 2시에 개최 할 예정이 다.

장 조합장은 앞으로 “정읍산림조 합의 운영기조를 ‘산림경영회’를 창립하여 23개 읍·면·동에 흩어 져 있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유대 관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히 며, “조경수작목회에 이어 버섯작 목회와 각종 임산물작목회를 구성 하여 산주와 임업인, 더 나아가 모 든 정읍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 업협동조합으로 거듭 날 수 있도 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을 사료용 작물 파종 농쳐도 ‘봄 심기’ 가능

농진청, 호밀·청보리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가을, 비가 많이 오거나 다른 작물의 수확이 늦어져 사료용 맥류를 파종하 지 못한 농가에게 봄에 파종할 수 있 는 호밀, 청보리 품종을 24일 소개했 다.

일반적으로 맥류는 썩이 튼 상태에서 지온을 지나야 이삭이 생기는 특성이 있으며, 호밀과 청보리 중에서 이 러한 성질이 약한 품종은 봄 심기를 해도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지만, 심는 방법에 따라 종자 양을 다르게 하고, 재배법을 잘 지켜야 한다.

봄 심기는 우선 땅이 녹는 2월 중순(남부지역), 하순(중부지역)부터 시작 해 늦어도 3월 상순 안에는 마쳐야 한 다. 파종이 빠를수록 수량이 많아지며 1만㎡(1헥타르)당 줄뿌림으로는 180 kg, 흩뿌림으로는 220kg을 심는 것 이 좋다. 파종 후에는 땅을 눌러 주어 야 발아가 빠르고, 봄철 건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습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하며, 비료는 복합비료(21-17-17)를 10,000㎡당 30포(600kg) 전량 밑거 름으로 뿌려주면 된다.



청보리 ‘유진’ 황색기.

이처럼 봄 심기한 호밀과 청보리는 이삭이 낀 뒤 각각 10월, 30일이 지나 수확하면 알곡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 에 풀 사료뿐만 아니라 곡실 사료로도 쓰인다. 특히 ‘곡우(호밀)과 유진’(청보리) 품종이 영양 가치가 양호하 다. 내한성이 강한 호밀 ‘곡우’는 조 단백질 함량이 8.7%이며 소화할 수 있 는 양분의 총 함량은 62.5%이고, 부드 러운 청보리 ‘유진’은 조단백질 함량 이 10.8%이며 소화할 수 있는 양분의 총 함량은 68.1%이다.

한편 호밀 ‘곡우’ 종자는 국립종자 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청보리 ‘유진’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서 구매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완주 고산농협에서 첫 일정 시작

친환경농업계 대표조직인 한국친환 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가 지난 21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완주군 고산 농협에서 2022년도 첫 이사회 및 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업발 전을 위한 정책 발굴, 대정부활동, 교 육 및 홍보활동, 자조금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각종 친 환경단체를 통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

해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 으며, 작년 사업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수립, 임원선출 등을 진행했다.

이후 행사는 임원들이 친환경농업 현장을 찾아 지역현황 이해 및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 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 회의 후 고산농협 홍보영상 시청, 경제사업 활 심화에 대한 설명과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사유림 매수 본격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정환)은 산 립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가치를 확 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60억원을 투입해 2,053ha의 사유림 매 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 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 로 지정된 산림이며,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및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가능 중대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진청, 고위공무원·과장급 승진인사 등 단행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25일자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승진·전보인 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 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 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북 농업기술원장 박동규
-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 자재육성팀장 김석원 ▲국립농업과학 원 농산물안전성부 진부회평과장장 원희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 성부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국립농 업과학원 농식품지원부 식생활영양과 장 유선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 지원부 발효기능식품과장 송진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배원연구소장 홍성식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 경부 동물복지연구팀장 장민원 ▲국 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최 창용
- 과장급 전보 ▲대변인 김동훈 ▲기회조정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 준규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성제훈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김병석 ▲기술협력국 농산임업영과장 조성주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고복 남 ▲국립농업과학원 기회조정과장 최달승 ▲국립수명과학원 작물기초기 반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현란 ▲국립축산 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유전체과 장 이상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령평가과장 임기순 /김윤상 기자